

2019년 제2회 서울시 7급 한국사(B책형) 정답해설

1. 같은 왕대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 ①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 그 일당을 처벌하였다.
- ②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채용하였다.
- ③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 ④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전국을 9개의 주(州)로 나누고 5개의 소경(小京)을 두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1. 정답 : ②

② 원성왕 대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고 관리를 채용하였다.

①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흥원 등과 역모를 일으켰으나 신문왕이 이를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전제 왕권을 강화하였다. ③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였다(682). ④ 신문왕은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5소경을 설치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2. 삼국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다.
- ② 단양 신라 적성비에서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사택지적비에서 백제의 한문학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 ④ 호우총의 청동 그릇을 통해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정답 : ④

④ 호우명 그릇은 신라 귀족의 무덤인 호우총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그릇을 통하여 5세기 당시 고구려가 신라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한 이후에도 전통 신앙을 강조하는 정책이 계속되어, 시조 신화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천하관이 5세기에 건립된 광개토대왕릉비와 충주 고구려비에 잘 나타난다. ② 단양 신라 적성비에는 10인의 중앙 고관과 그들의 관등 및 지방 관등이 보이며, 또한 당시 신라의 율령 제도 및 노역 체제, 재산 분배에 대한 국법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사택지적비는 사륙변려체 문장이고, 글자체는 웅건한 구양순체로 쓰여 있어, 백제의 높은 문화 수준을 잘 보여 준다.

3. <보기>의 밑줄 친 인물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당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 ① 당이 발해왕을 발해국왕으로 승격하여 책봉했다.
- ②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 ③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 ④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中興)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3. 정답 : ②

밑줄 친 '무예'는 장문휴로 하여금 등주를 공격하게 한 발해 무왕이다.

② 발해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당의 압박을 견제하고 정치·외교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고, 727년 발해 무왕 때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게 되었다.

① 대조영 대 '발해군왕'으로 책봉을 받은 발해가 신라와 대등하게 인정받았던 시기는 당나라가 안사의 난 등으로 발해의 협조가 필요하던 시기인 발해 문왕 대인 762년이었다. 이를 통해 발해는 당으로부터 '발해군'이 아닌 '발해국'으로 인정받았으며 왕에 대한 책봉 작위가 '발해군왕'이 아닌 '발해국왕'으로 승격되었다. ③ 발해 문왕의 존호인 '대홍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을 통해 문왕이 불교의 이상적인 제왕인 전륜성왕의 이념을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왕의 딸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석에서는 아버지 문왕을 '대왕',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층 강화된 왕권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뒤희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 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②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 ③ 22부의 중앙 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을 5부와 5방으로 정비하였다.
- ④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서신을 전했다.

4. 정답 : ④

중국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의 칭호를 받은 왕은 무령왕이다.

④ 백제 무령왕 때 중국 양나라와 수교(521)를 맺고 조공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을 수차례 격퇴한 사실을 전하기도 하였다.

① 개로왕(455~475)은 472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에 대항하여 중국 북조의 북위(北魏)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서(결사표)를 보냈으나,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한성이 함

락되고 왕 자신도 전사하였다. ② 백제 동성왕은 신라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여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였다(493). ③ 백제의 22부 중앙 관제와 5부 5방의 지방 제도 정비는 성왕(523~554) 때의 사실이다.

5. <보기>의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때 ㉠이(가)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 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처음 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릇 30만 5천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천 7백명뿐이었다.

- ① 그는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막리지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② 그는 요하 하류에 있는 안시성에서 공방전 끝에 승리하였다.
- ③ 그가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5언시가 전해진다.
- ④ 그는 5천의 결사대를 조직해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5.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은 살수에서 수나라 군을 격퇴한 을지문덕이다. ③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군 우중문을 찬양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롱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여수장우중문시」를 지어 보냈다. ① 연개소문에 대한 내용이다. 천리장성의 축조 감독이었던 연개소문은 642년 무단적 정변을 일으켜 자신을 해치려 한 영류왕과 반대파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영류왕의 조카인 보장왕(642~668)을 옹립하였다. 이후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어 무단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하면서 대외 정책을 강경화하였다. ② 양만춘은 645년 안시성에서 당 태종이 이끄는 당군의 총공격을 막아냈다고 전해진다. ④ 백제의 계백은 5천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6. <보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임금은 스스로 황상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5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율령에 해당하는 정령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였다.

- ①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 재정기관으로는 사장시가 있었다.
- ② 6부의 이름은 충·인·의·예·지·신 등 유교의 덕목을 따서 만들었다.
- ③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다.
- ④ 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중대성이라 불렀다.

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국가는 '발해'이다.

④ 중대성은 당의 중서성을 참고하여 만든 기구로, 중서성은 정책을 구상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발해의 중대성 역시 왕명 문서를 작성하여 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는 정당성이다.

① 중정대는 『신당서』 발해전에 당나라의 어사대와 비슷하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감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장시는 당 태부시처럼 재화의 보관과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발해는 당으로부터 3성 6부제도를 수용하였으나 그 명칭이나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다. 정당성 밑에 좌사정으로 충·인·의부, 우사정으로 지·예·신부 등 이원적인 6부 체제로 구성되었으며, 명칭 역시 유교적 덕목에 따라 지어졌다. ③ 발해는 15부의 장관으로 도독, 15부 밑의 62주의 장관으로 자사, 그 밑으로는 현의 장관인 현승을 두었다.

7. <보기>의 밑줄 친 ‘내’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하여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백성들은 난리 통에 그들의 폭골(曝骨)이 들판에 널렸다. 전 임금의 온갖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 와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국가가 멸망하였다. 내가 그 위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하였는데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원하던 일이겠는가? 다만 모든 일을 시작하는 때라 일이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 관리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자기의 녹읍(祿邑)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 ① 대외적으로 남중국의 오월,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교를 맺었다.
- ② 발해 왕자 대광현이 망명하자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 ③ 『정계』, 『계백료서』 등을 통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④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하였다.

7. 정답 : ①

이 사료는 934년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민심을 위로하고, 지배층의 도덕적 애민 통치를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서이다.

- ① 남중국의 오월 및 일본과 외교 관계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한 것은 후백제의 견훤이다.
- ② 926년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한 뒤 934년 발해 왕자 대광현이 유민들과 고려에 투항해오자, 고려 태조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였으며 대광현에게는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③ 고려 태조는 『정계』 1권과 『계백료서』 8권을 지어 신하들의 임금에 대한 규범과 도리를 제시하였다. ④ 고려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복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다.

8. 조선시대의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식년시와 특별 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다.

- ② 무과의 경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합격자가 양산되어 ‘만과(萬科)’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 ③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④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8. 정답 : ③

③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무과와 달리 전시를 치르지 않았다.
 ① 과거 시험은 3년에 1번씩 치르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식년시라고 하였으며, 식년시 외에도 부정기적인 과거 시험인 별시(別試)가 있었다. ② 조선 후기에는 국가 재정이 궁핍하여 병력 수를 채우기 힘들었으며,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되지 않아 도망병이 많이 생기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무과에서 정해진 인원 수 보다 많은 수를 선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과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천인, 만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뽑는다하여 ‘만과(萬科)’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조선 후기에 ‘만과’는 대체로 무과를 지칭하게 되었다. ④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 봉건적 전통 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개혁 정책이 추진되며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9.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박서의 지휘 아래 귀주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ㄴ. 배중손이 왕족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했다.

ㄷ.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보군이 조직되었다.

ㄹ.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ㄷ-ㄱ-ㄹ
- ③ ㄷ-ㄴ-ㄷ-ㄱ
- ④ ㄷ-ㄹ-ㄱ-ㄴ

9. 정답 : ④

ㄹ. 목종이 김치양 일파에게 위협을 느끼고 서북면도순검사 강조에게 자신의 호위를 명하였으나, 강조는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하였다. 이를 명분 삼아 거란이 침입(1009)해 오자 행영도통사가 되어 거란군과 맞서게 되었고 여러 차례 승리하였으나 통주에서 패하며 포로가 되었다(1010). ㄷ. 윤관의 건의로 신기군과 신보군이 조직된 것은 1104년(숙종 9)의 사실이다. ㄱ. 박서가 몽골 침략에 맞서 귀주성에서 전투를 펼친 것은 몽골 1차 침입 때인 1231년(고종 18)의 사실이다. ㄴ. 삼별초가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1270년(원종 11)의 사실이다.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12. <보기>의 ㉠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한동안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종은 재위 8년 무렵 반정 3인방이 모두 사망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구했다. 그때 중종의 눈에 들어온 ㉠은(는) 사림파의 선두 주자였다. 그는 1510년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1515년 별시에 급제하여 국왕인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1518년 대사헌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였다.

- ① 『소학』과 향약(鄕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 ②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된 무오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 ③ 방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④ 위훈삭제로 구세력을 제거하고 신진세력 중심으로 정치관을 재편하려 하였다.

12.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 인물은 조광조이다.

- ② 조광조는 중종 때 기묘사화 당시 사사당하였다. 한편 무오사화는 『성종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김일손의 사초에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을 단종에 비유하여 풍자하는 내용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김일손, 이목 등 사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처형당하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유배되거나 면직되었다.
- ① 조광조는 『소학』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생활에까지 유교적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향촌의 유교적 교화를 위해 향약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1519년(중종 14)에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전국에 반포하기도 하였다.
- ③ 조광조는 농민 부담을 감소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였다(수미법 실시 주장).
- ④ 조광조는 중종 반정 때 공신이 된 인물들 가운데 거짓이나 과대평가된 공신들의 공훈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종은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3. 조선 후기에 <보기>의 주장을 펼친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보기>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파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수공업자)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예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사·농·공·상 사민(四民)이 모두 곤궁해져서 도울 수 없게 된다.

- ① 『반계수록』
- ② 『북학의』
- ③ 『곽우록』
- ④ 『흙흙신서』

15.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은 연해주이다. 연해주는 이미 19세기부터 한인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905년 이후 이주가 급증하여 여러 곳에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한·일 병합 조약(1910) 이후에는 일제 식민 통치의 압제를 피하거나 또는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한 근거지로 더욱 발전하였다.

③ 권업회는 러시아 당국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가한 연해주 지역 한인 사회의 자치적 조직이었다. 한편, 연해주 지역에서는 권업회 인사들 중 러시아 정부 당국의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체제 내 활동에 대해 한계를 인식한 이상설, 이동휘 등이 대한 광복군 정부(1914)라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 비밀리에 군사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이후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 국민 의회가 결성되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서간도(남만주) 지역에 설립된 대표적 독립 운동 기지로는 신한민촌이 있으며, 신흥 무관 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②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 단체로는 중광단, 간민회 등이 있다. ④ 미주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 단체로는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등이 있다.

16. <보기>의 비석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 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 ①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 ② 미국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였다.
- ③ 부산, 인천, 원산 항구를 개항하였다.
- ④ 구식 군인들이 반외세 운동을 일으켰다.

16. 정답 : ②

제시된 비문은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건립된 척화비로 비문의 내용은 병인양요 때 제작되어 신미양요(1871) 이후 전국에 세워졌다.

②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배상과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목적으로 신미양요를 일으키자 대원군은 이를 물리친 직후 서울의 종로 네거리와 성균관 그리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①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바닷길을 따라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자 강화도 초지진 포대에서 경고 사격을 하였다. 이에 일본이 퇴각하면서 영종진에 포격을 가했고, 육전대를 상륙시키면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이 모든 책임이 조선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를 구실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해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1876). ③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하였다. ④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은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①, ② 서원 철폐와 호포법 실시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유생들의 반발을 샀다. ③ 신분 제도 폐지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시행되었다.

19. <보기>의 (가)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나)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 ①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 ②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 ③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에 나섰다.
- ④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19.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 (나)는 1910년 8월에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이다.

③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선의 재정고문으로 초빙된 메가타 다네타로는 1905년 6월부터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①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사립 학교의 운영을 통제하였다. ②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④ 정미 7조약에는 비밀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 각서에 따라 1907년 8월 1일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됨으로써 일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20.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들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956년의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운 ㉠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전체 유효표의 30%를 차지하였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 | | ㉠ | ㉡ |
|---|-----|-----|
| ① | 조봉암 | 장면 |
| ② | 신익희 | 장면 |
| ③ | 조봉암 | 김성수 |
| ④ | 신익희 | 김성수 |

20. 정답 : ①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에서 이승만, 민주당에서 신

익희, 그리고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우며 진보당 창당을 준비하던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선거 직전인 5월 5일 민주당 후보 신익희가 지방 유세 도중 뇌일혈로 사망하였는데, 유효표 721만여 표 중 이승만이 504만여 표를, 조봉암이 216만여 표를 얻으며 약진하였고, 신익희의 추모표로 일컬어지는 무효표도 185만여 표가 나왔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 401만여 표를 얻어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